

나눔터

퍼낸곳: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퍼낸날: 1994년 5월 23일/ 계간발행/ 주소: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45호(우. 137-600)/ 전화: 02)576-7127~8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장에서

차 례

이런 일을 했습니다	2	생각해 봅시다(최은정)	11
이렇게 생각한다(최영희, 최영애)	3	낙 수	
여기는 상담실	4	나눔터 애깃글/벽을 향하여(문경심)	12
이렇게 도와줍니다	5	성문화 읽기(최지영)	13
더 좋은 상담을 위하여	6	읽어 봅시다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지침서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14
특집:성폭력특별법 이렇게 적용됩니다	8	인사드립니다	15
 		박종민/의료자문위원, 위기센터 위촉의	
재판 관람기	10	박찬운/법률자문위원, 상담지원위원회 위원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법정에서(김계영)			



3년간의 주요 발자취

(1991. 4. 13 ~ 1994. 4. 13)

본 상담소가 성폭력 없는 사회를 위하여 문을 연 지 세 돌이 되었습니다.
삼년 동안 어떤 일들을 했는지 되돌아 봄으로써 상담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디딤돌로 삼고자 합니다.



▲ 상담소 개소식



▲ 성폭력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앞 시위

■ 1991

- 4. 13 -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식
- 7. 3 - 김부남 대책위원회 활동
- 8. 21 - 「성폭력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 결성
- 11. 23 - 제1회 성폭력 추방의 날 기념 「어린이 성폭행 추방을 위한 한마당」
- 12. 26 - 제1기 상담원 교육 수료식

■ 1992

- 2. 25~29 - 성폭력 예방 기금 마련 바자회
- 3. 3 - 김보은, 김진관 사건 공동 대책위원회 결성
- 6. 24 - 성폭력위기센터 발기인 대회
- 7. 14 - 제2기 상담원 교육 수료식
- 11. 5 - 성폭력위기센터 기금 마련을 위한 만찬회
- 11. 6 - 주한미군의 윤금씨 살해사건 공동 대책위원회 활동
- 12. 30 - 『일그러진 성문화, 새로 보는 성』 발간

■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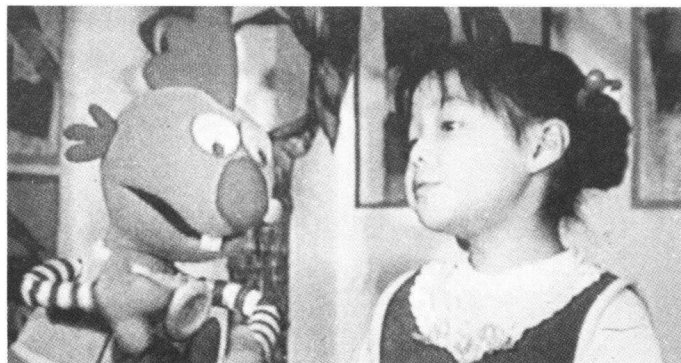
- 3. 15 - 사단법인 인가
- 4. 13 - 개소 2주년 기념 행사 「나눔과 모음의 한마당」
- 6. 15 - Morash 교수 특별초청 강연
「사회변화를 위한 위기센터와 쉼터의 역할과 기능」
- 6. 29~30 - 성폭력위기센터 설립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 7. 6 - 제3기 상담원 교육 수료식
- 10. 9 - 본 상담소 양재동으로 이전
- 11. 19 - 본 상담소 제작 어린이 성폭력 예방 비디오
『내 몸은 내가 지켜요』 시사회
- 12. 13 - 성폭력위기센터 개설
- 12. 16 - 제4기 상담원 교육 수료식
- 12. 17 - 성폭력특별법 국회 통과

■ 1994

- 1. 14 - 최영애 소장 「제11회 여성동아 대상」 수상
- 4. 13 - 개소 3주년



▲ 위기센터 지킴이들 (가운데 명예지킴이 손숙, 문성근)



▲ 「어린이 성폭력 예방 비디오」 내용 중에서

이젠 채찍도 필요하다



최 영 희(내일신문 대표)

어두운 무대 위에, 안개빛 서치라이트가 지쳐 쓰러진 연인을 비추고 있다. 잔잔하고 애끓는 음악에 맞춰 조금씩 조금씩 비틀거리며 짓밟히고 애통해 하는 모습은 누가 보아도 이 땅의 여성 현실이다. 서서히 몸을 일으켜 하늘을 향해 손을 뻗치며 땅을 박차고 나서 밝아진 온 무대를 뛰며 달리는 춤꾼은 우리 가슴을 고동치게 한다. 성폭력상담소가 걸어온 3년의 역사는 마치 온 몸으로 이 땅의 여성현실을 보여주는 무대위 춤꾼의 모습이었다. 홀로 가슴앓이 하는 여성들을 어루만지고 상처를 치료해, 일어서서 견고 뛰고 세상을 향해 외치게 하는데 때론 눈물로, 때론 채찍으로 최선을 다해왔다.

처음 성폭력상담소를 만든다는 가혹한 여성들의 출발을 보며, 「운동성」과는 거리가 먼 여성학 전문가들의 학술연구현장실습 정도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기대(?)를 완전히 꺾고 성폭력 문제가 여성운동의 한가운대를 차지하게 하고 처절한 아픔이 있는 곳마다 성폭력상담소의 전두를 알리는 깃발과 외침이 있었다. 물론 예방에도 앞장섰다. 성폭력특별법을 제정케하고 언론을 통해 우리 사회 여성들의 억압의 현실을 최대한 고발하려 노력했었다. 3년간의 그 노고에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박수를 치고 싶다.

86년으로 기억된다. 아내구타를 사회 문제화시킨 「여성의 전화」 주최로 우리나라

라에선 처음으로 「성폭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있었다. 나는 그때 주제발표를 맡아 성폭력의 개념정립에 일조하기도 했다. 참으로 생소한 용어에 모든 언론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지속적 뒷받침이 없었기에 이 문제는 사그러지는 듯 했다. 물론 나는 줄곧 노동현장에 관심을 가져온 터라 성폭력 개념을 광범위하게 설정하려고 노력했다. 이젠 용어도 분화되어 성폭력과 성희롱도 구분하고 활동영역도 전문화시키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다 좋은데 이럴 때의 문제는 전체적 구조적 시각이 부족해지고 「해결사」활동으로 끝나거나 여성문제의 본질보다는 대남성 투쟁의 방향으로만 가기 쉽다는 것이다.

보호와 처리뿐 아니라 예방, 그리고 이젠 원인제거를 위한 구조적 모순에 도전해야 한다. 구조적 모순에 대해 이론에서는 이의가 없지만 실천에서는 몸이 굼뜬 적은 없었던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 봉대와 나팔만이 아니라 채찍을 손에 든 여성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

이제부터 시작이다



최 영 애(본 상담소 소장)

성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한 터를 닦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성폭력을 일부 온 나쁜 여성들의 몸조심, 몸단속의 문제 정도로 간주하며 순결상실 차원에서 인식하는 사회 통념의 벽은 너무나 크고 두터웠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한 성폭력 관련법과 수사관행은 또 하나의 견고한 장애물이었다.

이러한 척박한 풍토 위에서 피해여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고통을 드러내어 말하게 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며, 그들의 손상된 자존감과 권익을 회복시켜 가는 일

은 끝없는 투쟁과 전략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많은 이들의 지혜와 전문적 도움이 요구되었고 그 무엇보다 뜨거운 가슴과 쉽 없는 노력이 필요했다.

그 동안 상담소는 피해상담 활동뿐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벽을 허물기 위해 성폭력 실태 보고서 및 각종 자료집을 발간하고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어린이 성폭력 예방비디오를 제작했다. 또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올바른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타단체와의 연계 속에서 김부남 사건 및 김보은, 김진

관 사건 대책위원회,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 서울대 성희롱사건 대책위원회 활동 등을 활발히 펼쳐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 12월에는 개소 때부터 계획해 온 성폭력위기센터를 개설, 24시간 운영하며 고소시 필요한 증거 채취를 하고 있다. 올해는 근친강간 등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의 위험이 있거나, 일정기간의 치유 프로그램이 필요한 피해자를 위한 집을 마련할 예정이다. 3년의 터닦는 작업을 거쳐 드디어 성폭력상담소로서의 골격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활동은 이제부터다. 성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한 각종 집단상담 프로그램, 피해자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적극적이며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전문상담기관으로 또 한번의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상담소의 터닦는 작업에 열과 성을 다해온 상담원, 나눔이, 지킴이, 자문위원, 후원위원, 회원, 이사, 상근자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낸다. ☪

일반상담 분석

올 1월부터 3월 사이에 3백49건의 상담이 접수되고 2백19회의 재상담이 이루어짐으로써 본 상담소는 총 5백68회 상담을 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총 3백66회 상담을 한 것에 비해 55%가 증가된 것이다. 이러한 증가는 작년 12월 위기센터를 개설하면서 위기상담뿐 아니라 일반상담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볼 때 가해자가 직장상사나 동료인 경우가 14.1%로 나타남으로써 지난해 같은 기간에 9.1%였던 것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이는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이 여론화 되면서 직장 내에서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이 이에 공감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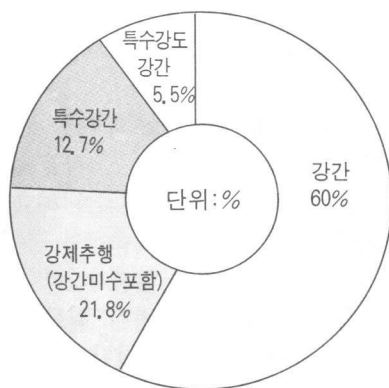
위기상담 분석

지난 93년 12월 14일부터 94년 3월말 까지 접수된 위기상담은 55건이다. 본 센터의 증거채취실을 이용하거나 연계한 병원에서 증거채취와 치료를 한 상담이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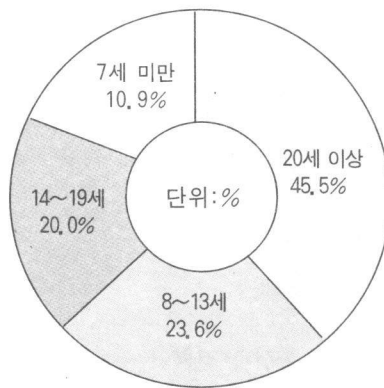
〈표 1〉 상담 현황

1994년 1월 ~ 1994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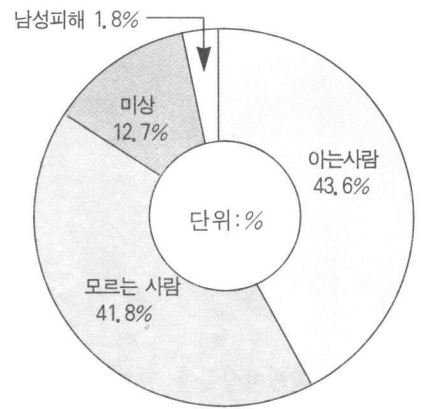
	유 형	가 해 자			피 해 자				미상	소계	고소	
					성인(20~)	청소년(14~17)	어린이(8~13)	유아(0~7)				
성폭행	171 (63.3%)	일반 강간 158 58.5%	아는 사람 109 40.3%	친 족 (11.1%)	아버지,오빠(5.2%)		5	8	1		14	2
				친인척(5.9%)		8	1	6	1		16	
				동네사람(6.3%)		9	2	2	3	1	17	6
				데이트 상대(2.2%)		6					6	2
				직장상사, 동료(8.5%)		20	3				23	7
				교사, 강사(1.5%)		1	1	2			4	
				기 타(10.7%)		17	7	5				5
				모르는 사람(16.0%)		25	8	9	1		43	12
				미 상(2.2%)		4	2				6	1
				윤 간(4.8%)		5	6			2		4
	성추행	일반 성추행 89 (33.0%)	아는 사람 51 18.9%	친 족 (6.0%)	아버지,오빠(3.0%)	-	5	2	1		8	1
				친인척(3.0%)		-		3	5		8	
				동네사람(3.7%)		2		3	5			3
				데이트 상대								
				직장상사, 동료(5.6%)		15						2
				교사, 강사(1.5%)		2		2			4	
				기 타(2.2%)		2		2	2		6	2
				모르는 사람(5.6%)		4	2	5	4		15	3
				미 상(0.4%)					1		1	
				강간미수 11 (4.1%)		9		2			11	4
언어추행 11 (4.1%)		10			1			11				
남성피해	10 (3.7%)		1	4	2	3	3		10			
계				140(51.9%)	46(17.0%)	54(20.0%)	27(10.0%)		270			
기 타	100 %	성문제, 순결	25.3%		10	5	2	3		20		
		인신매매	-									
		아내구타	2.5%		2					2		
		혼인빙자 간음	2.5%		2					2		
		장난전화	2.5%		2					2		
		기 타	67.1%		41	8	2	2		53	1	
계				57	13	4	5		79	55		
계						59	58	32	3	349		
재 상 담				118	43	45	42			219		
총 계										568		



〈그림 1〉 피해유형



〈그림 2〉 피해자 연령분포



〈그림 3〉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건, 경찰로 연계한 상담이 10건, 이미 고소된 후에 들어온 상담이 8건이다.

위기상담 중 고소 및 신고율은 32.7%로 일반상담 고소를 9.7%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위기상담의 피해유형은 일반강간, 특수강간(칼이나 흉기를 소지했거나 2인 이

상이 강간을 한 경우), 특수절도(칼이나 흉기를 소지하고 절도를 하는 경우)나 야간주거침입절도와 강간이 합해진 특수강도강간, 그리고 강제추행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1〉

피해자의 연령은 20세 이상의 성인이 45.5%, 20세 미만이 54.5%로 나타났다.

그 중 어린이 성폭력(13세 이하)이 34.5%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어린이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피해자, 가해자와의 관계는 아는 사람이 43.6%로 일반상담(아는 사람이 59.3%)과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어린이 성폭력

B시에 있는 오피스텔 경비원 4명이 입주자 자녀(5세)를 1년 동안 성폭행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지난해 6월초 이 사실을 알고 즉시 고소하기 위하여 아이의 이야기를 녹음해 놓은 다음 본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어머니는 상담 후 진단서(질염)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가해자들을 고소하였고, 아이는 가해자들이 경비용 가스총과 사무용 칼로 위협하면서 오피스텔의 빈 사무실과 베란다 등에서 강간과 추행을 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담당 검사는 『추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만5세의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 위해 가스총과 사무용칼로 협박한다는 것과 40세 전후의 어른들이 합동하여 만5세의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다는 것 등이 경험적으로 쉽게 납득되지 않고, 피의자의 행위로 인하여 그러한 진단결과가 나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해자 2명은 불기소 처리하였다. 기소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단순추행 사실만을 인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 중 특수강간죄를 적용하지 않고 이보다 가벼운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으로 기소하였다. 이에 피해자측에서는 불기소 처리된 2명과 기소된 2명에 대해 특가법으로 기소할

것을 내용으로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결국 기소된 2명은 각각 징역 3년과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본 상담소에서는 이 사례를 접하고 피해자 부모와 30여 차례의 상담을 하면서 법적 절차를 알려주는 등 법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함께 해나갔다. 엄중한 수사와 공정한 판결을 위해 진정서와 함께 어린이 성폭력 실태를 알리는 자료를 담당 판사와 검사에게 보내고 피해자와 부모의 심리적 안정을 도왔다.

상담 초기에는 극도로 흥분하고 혼란스러워 하던 부모도 상담이 지속되면서 안정을 되찾고, 적극적으로 아이를 회복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피해 어린이는 피해 후 성격이 난폭해지고, 남자를 무서워하며, 자다가도 일어나서 옆에 부모가 있는 것을 확인해야 안심하는 등 후유증을 보여왔다. 그러나 아이가 솔직하게 얘기한 것과 용기있게 진술한 점 등을 칭찬하고 안심시켜가며, 이사를 하는 등 부모의 세심한 배려로 아이의 상태가 많이 회복되었다. 이 사례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상식과 성폭력 현실 간의 차이를 뚜렷이 보여주고, 피해자의 회복과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부모와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 번 보여주는 것이었다. ☪

무고죄

O시의 L씨는 지난 1991년 12월 직장상사에 의해 강간을 당했다. 출근한지 2일째 되는 날이었다. 당시 23세였던 피해자는 친구의 도움으로 본 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했고, 4차에 걸친 상담을 통해 전해 받은 정보로 산부인과 진단서와 외과적 상해 진단서를 첨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7차 상담을 끝으로 상담이 끝났다가 이듬해 2월 지역 단체로부터 L씨가 무고죄로 구속되었다는 연락으로 상담이 재개되었다. 수사과정에서 이른바 「꽃뱀」으로 오인받아 강간은 무혐의로 처리되고 피해자는 오히려 무고죄로 92년 2월에 구속되었다. 각종 진단서 첨부와 서울 법무사에서 고소장 작성이 수사관들로 하여금 그녀를 「꽃뱀」으로 오인하도록 선입견을 주었던 것이다. 게다가 피해자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L씨는 자신을 위해 수사해 주어야 하는 경찰이 자신에 대해 캐어묻는 듯한 인상에 대단한 분노를 표출했던 것이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5월말에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그녀는 4개월 동안이나 구속되어 있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92년 7월이었고, 검사의 항소와 상고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93년 8월이었다. 「무고」라는 죄명을 벗기

까지 1년 6개월이 걸린 것이다. L씨는 가해자가 처벌되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다시 O시 법원에 강간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94년 5월인 현재까지 법원의 통고를 기다리고 있다. 피해자는 91년 처음으로 강간을 당한 후 94년 현재까지 4년 동안 55차에 걸친 상담을 하면서 계속되는 싸움을 하고 있다.

처음 상담소에서 피해자를 면담한 것은 교도소의 철창을 사이에 두고서였다. 가해자와 세상에 대한 분노로 L씨는 입을 열지 않았고, 자신이 피해자인데 왜 간혀 있어야 하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항소심이 끝난 93년 5월에 재판이 끝나고 나오면서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그제야 안정을 찾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이 삶의 목표처럼 되어버린 L씨는 아직도 자신만을 위한 삶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이다. 성폭력으로 고소한 여성을 곱게 보지 않는 선입견이 한창 밝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야 할 젊은이의 희망을 짓밟아 버린 사건이었다. 94년 5월 현재 그녀는 비교적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규칙적인 생활에 적응하면서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 ☪

나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지침서

성폭력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친구들까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피해자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더 좋은 상담을 위한 모임」에서는 이를 위한 도움말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이나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점은 제각기 다를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말이나 행동을 강요하지 말라.

성폭력 피해자는 자기 통제력을 잃기 쉽다. 무엇보다 피해자에게는 스스로 자기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피해자를 어느 쪽으로든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하고 싶어하면 들어주고 피해자의 얘기를 듣는 것이 어렵거든 얘기를 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주도록 한다. 피해자가 말하지 않는데 억지로 얘기를 시킬 필요는 없다. 그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이 피해자를 돕고 싶은 마음보다 앞서서는 안된다.

◎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라.

피해자를 돕는 마음에서 「걱정하지 마라, 울지마,」「자꾸 생각하지 마라」 등의 얘기를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신이 그 사실을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다. 그 사실을 무시한다고 성폭력 후의 피해 감정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 피해자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피해자의 행동을 미루어 짐작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야지, 그렇게하지 말았어야지,」--「창문에 안정장치를 해놓았다면,」「밤에 밖에 나가지 않았다면,」「저항하지 않았으면」 또는 「힘으로 저항했으면,」「만약에 그 남자의 아파트에 가지 않았다면」--라고 말

하는 것은 단지 아픔만을 더할뿐이다. 피해자가 무엇을 했거나 하지 않은 것이 사건을 일으킨 것은 아니다. 엄연히 성폭력은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이다.

◎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갖지마라.

피해자의 행동과 태도가 사건을 유발한 것은 아니므로 사건 당시 피해자의 행동을 책망해선 안된다. 또한 「추하다, 두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폭력을 성관계로 오인한데서 생긴 편견이며 성폭력에 대해 보고 듣는 여러가지가 오해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 어떤 때는 피해자에게 화가 날 수 있다. 성폭력을 방지하지 못한 데 대한 죄의식이 들 수도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감정이 피해자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런 생각이 피해자를 돕는 데 방해가 되게 해선 안된다.

◎ 비교하지 말라.

다른 피해자의 경험과 비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떤 때는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의 상황을 알고 싶어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는 피해자가 먼저 원할 때만 해야한다. 또한 상황이 더 나쁠 수도 있다는 것을 위로삼아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피해자는 성폭행 당할 때 가해자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있기 때문이다. 「이만하면 다행이다」라고 여기는 것은 피해자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다.

◎ 당신 자신이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자를 찾아라.

성폭력 문제의 상담원은 가까운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운가를 잘 알고 있다. 상담원들은 당신이 염려하는 점이나 질문에 대답해 줄 것이다.

◎ 일상생활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외출〉

- 일상생활도 피해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직장에서 늦게 온 다거나 혹은 식품점에 가는 것까지도 두려울 수가 있으니 이런 경우 피해자와 동행하는 것이 좋다.

〈집안일〉

- 작은 심부름이나 빨래, 아이 돌보기 등도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줄 수 있음을 알려주고,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즉시 도와줄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안전에 대한 염려〉

- 어디서 강간을 당했는지 피해자는 집이나 아파트의 안전을 염려할 것이다. 피해자가 원하면 창문이나 문에 열쇠를 달거나 다른 안전장치의 설치를 도와준다. 피해자가 이사를 원할 때는 집을 알아보거나 이사를 도와준다.

- 피해자가 경험했던 상황에 따라 피해자는 잠시 자기집 외에 다른 곳에 있고 싶어할 수 있다. 또는 자기 집에 친구가 함께 있기를 바랄 수 있다. 피해자는 혼자 있으면 더욱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피해자를 당신의 집에 있게 할 경우 위로를 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고통이 가깝게 와닿는 것이니, 이런 점에 대해 준비가 되어있는지 확인하라. 집안 사정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없으면 시간을 정하여 피해자의 집에 전화를 하는 방법도 있다.

〈재정문제〉

- 많은 피해자가 강간당한 후 상당한 재정적 손해를 입기도 한다. 피해자는 사고 바로 후 또는 재판과정 동안 직장을 나가지 못한 시간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사를 하는 등의 생활변화로 생활경비가 늘 수도 있으니 경제적인 도움도 피해자를 돕는 한 방법이다.

〈전문인의 도움〉

- 가능한 피해자 거주 지역 내에서 성폭행에 대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알아본다. 피해자가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에게 치료나 상담을 원한다면 당신은 강간 피해자 전문인 인가를 먼저 알아보고 명단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뒤 피해자가 결정할 수 있게 해야한다.

〈법정동행〉

-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한 경우 피해자는 검사와 여러번 만나야 하고 재판에도 여러번 나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재판이 진행되는 중 언제든지 동행하도록 한다. 또 다른 친구들과 협력하여 교대로 동행하면 한 사람이 무리를 하지 않고 피해자를 계속 도와줄 수 있다.

◎ 강간후의 성

강간은 피해자의 성감정에 오랫동안 영향을 주기도 한다. 만일 피해자가 성행위를 잠시 피하고 싶어하면 그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피해자가 겁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더라도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도록 한다. 피해자의 회복기 중에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일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당신이 중요한 시기에 보여준 이해와 걱정은
피해자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가 이 경험을 통해서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특별법 이렇게 적용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대다수의 여성들이 출·퇴근때마다 겪는 일상과도 같은 성추행, 어쩌다 고소라도 할라치면 「별일도 아닌데 소란을 피운다」는 주위사람들의 핀잔, 경찰마저도 조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던 그 동안의 성폭행 관행들을 떠올려본다.

그러나 성폭력특별법이 발효된 지금부터는 강간외에 어떤 행동이 성폭력에 속하는지, 그런 행동을 했을때(당했을때) 얼마만큼의 벌을 받는지(어떤 법적 조치를 가할 수 있는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미래의 가해자(?)에게 경고하고, 피해자에게는 법적 도움을 주는 의미에서 성폭력특별법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이 법은 기존의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법률에 규정된 성폭력범죄 외에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친족, 장애인 강간은 제3자 고발도 가능

그 동안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였지만 이제부터 성폭행가해자가 친족이거나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는 친고죄를 적용하지 않아 제3자도 고발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 친족이라함은 4촌 이내의 사실상의 관계를 말한다. 친족강간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고, 친족강제추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는다.

이 규정에 따라 그 동안 가족내에서 쉬쉬하던 근친강간,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을 제3자의 고소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기여한다는
이 법의 목적을 잘 알아야.....**

비해 추행까지 확대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동료에 의한 추행은 제외되어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전철이나 버스에서의 치한도 처벌할 수 있다

전철이나 버스, 공연·집회장소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여성을 집적거리는 치한들을 피해자가 고소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경찰의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실질적인 대응책이 된다.

■직장에서의 성추행도 처벌 가능하다

직장상사 혹은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경영주가 업무나 고용상의 관계를 이용해 성추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전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했던 것에

■「얼굴없는 치한」도 물리칠 수 있다

전화·우편·컴퓨터·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상대방을 성적으로 괴롭히는 이른바 「얼굴없는 치한」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 고소기간이 연장된다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의 고소기한을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로 정하고 있지만 특별법에서는 폭력범죄의 경우 고소기한이 1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 보호관찰제와 보호감호제도가 신설되었다

성폭력 범죄자는 법원이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는 1년 동안,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이 제도는 사후대책만이 아닌 예방교육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특별법의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번 성폭력특별법은 대개의 특별법이 보여준 장식적인 기능에만 그치지 않고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성단체 그리고 국민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이 절실히 요청된다.

■ 피해자의 사생활도 보호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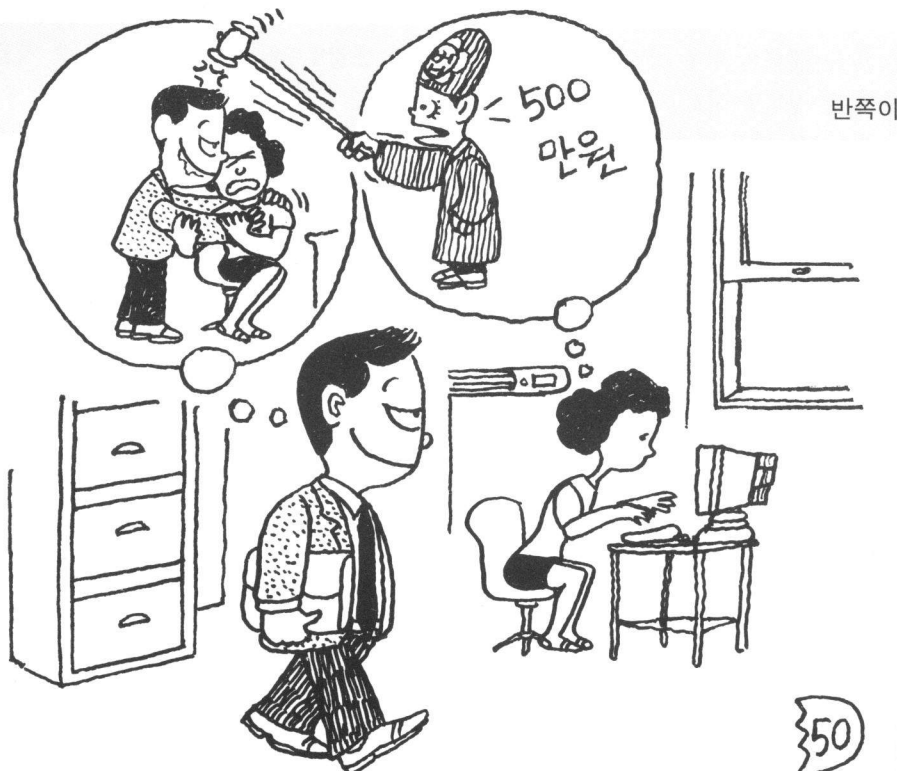
성폭력 범죄의 심리는 피해자가 원하면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성폭력 범죄의 조사나 재판에 참여한 사람들이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해 피해자의 사생활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이 밖에 법원이 성폭행 피해자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가석방할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게할 수 있다. 또한 상담소 등의 운영에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보건사회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보건소나 국·공립병원을 성폭력 피해자의 담당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기여한다는 이 법의 목적을 모든 국민이 바로 안다면, 그동안의 관행에서 보듯 피해자가 우스갯감이 되진 않을 것이다. 물론 특별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성폭력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번 성폭력특별법은 대개의 특별법이 보여준 장식적인 기능에만 그치지 않고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성단체 그리고 국민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이 절실히 요청된다. 또한 성폭력을 부추기는 향락·퇴폐 문화의 일소, 성폭력에 대한 통념 깨기, 바람직한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유

나눔터 그림



반쪽이

50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법정에서

김 계 영 (지킴이)

관심을 모았던 국내 최초 성희롱 재판의 판결이 났습니다.
원고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이 판결은 성폭력특별법에서 조차 제외된 성희롱을
사법적 제재의 범위안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 판결은 남성위주의 성문화에 경종을 울렸고, 여성들의 인권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점에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전철역에서부터 핵핵거리다 올라서니 법원이 바라다 보이는 막바지 언덕길, 아직 익숙치 못한 길이라선지 바람결 매듭기가 예사로이 느껴지지 않았다.

서울대 조교 「성희롱 손해배상 청구」진. 이번이 그 세번째 공판일. 우조교 본인이 직접 증인으로 출두한다고 해서인지 여성단체, 학생 대책위원회 뿐만 아니라 그의 관심 많은 일반인들이 함께 자리해 사람 수는 차치하더라도 북적대는 열기가 여느때와 또 달랐다.

원래는 5시라 했건만 8시30분에야 겨우 시작되었는데 이젠 또 웬일? 만원버스를 방불케 할 정도로 서로 제 발바닥 비빌 자리하나 엿보다가는 이내, 변호인석 바로 뒤까지 포진해야 할 지경이었으니까.

이 사건의 원고인 우조교는 재작년 5월 말부터 서울대 화학과 기기담당 조교로 근무를 시작했다. 그런데 피고인 신교수가 기기조작 등을 핑계로 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해와 마찰을 겪었다. 이후 사적감정이 개입된 업무방해에까지 시달려오다가 작년 7월부터 더 이상 출근말라는 일방적 통보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총장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묵묵부답, 해서 학내 대자보 작업을 시작으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법정에서 서게 된 것이다.

학교에 지지기반 없는 외부출신 조교에 대한 교수의 권력관계, 기기와 기기담당 조교에 대한 피고의 독점권과 기기실이라는 공간의 은폐성에서 발생하는 상황적 특수성, 신체접촉, 눈짓, 언어 표현, 부당한 보복적 업무방해와 해고에 대한 근거 빈약, 임용된 직업인으로서의 권리를 묵살한 학교측의 책임회피 등의 문제점들이 원고측에 의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피

고측은 왜 원고가 싫은데도 말로 정식항의를 하지 않았는지, 그 때문에 피고한테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돼서 성희롱의 행위로 오인된 것은 아닌지, 이를 친밀감 표현의 일종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지의 문제에 집중포격을 가하며 원고측 주장들에 대한 반박 논리를 펴 나가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피고인측 변호인의 표현에 잔뜩 움츠리고 있던 긴장된 분위기가 슬슬 술렁이면서 간혹 어이없다는 듯한 코웃음과 「피」하는 소리도 새 나왔건만 우조교의 침착하고 단호하면서도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다시 그 맥을 팽팽히 붙들어 매곤 했다.

『재임용 받았으면 성희롱을 주장했을까, 재임용해 준다하여도 거부해야 하지 않을까, 난 이해가 안된다. 왜 거부하지 않았나? 명확히……』 미진한 듯한 의문을 뒤로, 장장 2시간이 넘게 걸린 이 긴 싸움에 지친 발걸음들은 분주히 제 갈길을 재촉하고 있다. 근데 막상 이 캄캄한 밤하늘과 그 정적이 순간 우릴 대책없이 막막하게 하는거다. 우린 어떤 말을 할 수 있나? 우리의 생각과 느낌, 삶이, 그 체험의 역사가 이렇게 갈라지는데, 서로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전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이의 아픈 깨달음이 일순간 우리들 나태함을 다시 채찍질하고 있었다. ♪

편집자 주

위 글은 법정지원모임에서 서울대 성희롱 사건 재판을 참관하고 정리한 글입니다. 법정지원모임은 본 상담소 소모임으로 상담원, 지킴이, 나눔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폭력 관련법을 학습하고, 재판을 참관하며, 진정서를 작성하면서 내담자에게 실질적인 법률적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월경을 바로 알자

최 은 정 (4기 상담원)

중학교에 입학해서 얼마되지 않아 초경을 하게 되었다. 초경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었고 그런 단어조차 들어보지 못했던 터라 그때의 당황, 심적 불안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내가 무슨 죽을 병에 걸렸나」하는 무시무시한 생각을 하면서 엄마 몰래 속옷을 갖다 버리기만 하고 속으로 끄끄 앓기를 며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팔자걸음을 하고 다니다 마침내 어른들께 말씀드렸을 때의 엄마와 할머니의 큰 웃음 소리는 지금도 잊혀지질 않는다. 그날 저녁부터 나는 이유도 모른채 아기 기저기를 하게 되었고 중3이었던 언니로부터는 「더럽고 이상한 애」라는 이유로 한방 쓰기를 거부당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다. 그 뒤로 허리가 뒤틀리듯이 배가 아파오는 통증과 함께 매월 전쟁같은 일을 치르게 되면서 「여자로 태어남」을 속상해 했고, 「여자는 너무나 귀찮고 남자는 편하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다. 「귀찮다」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은 나뿐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 같다. 우리는 달거리를 하면서 은연중에 「이제 다 컸으니 몸가짐 잘해라」라는 말을 들으며 커왔다. 바로 「몸가짐을 잘해라」라는 말이 뭔가 석연치 않고 밝은 쪽보다는 어두운 느낌을 갖게 하면서 달거리를 귀찮고 짜증나는 일로 만들어 버

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우리의 부모세대는 달거리를 하는 것이 여성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임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위대함이라는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자부심을 느끼게 하기보다는, 행동에 대해 규제를 가하고 몸조심을 해야한다는 생각만을 주입시켰으니 그럴 수밖에.

이제 우리는 이러한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초경을 하면 웃어 넘기거나 따돌리지 말자. 대신 친구들을 불러서, 아니면 가족끼리 조출한 잔치라도 벌여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성적 기능의 성숙함을 모두가 축하해 주는 것은 어떨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자와 남자가 생식기의 차이는 있지만 평등한 인간임을 일깨워주고 성역할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여자의 몸」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다. 그러면 아이들은 월경을 어른이 되어가는 정상적인 발달과정으로 받아 들임으로써 올바른 자기인식을 키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달거리는 결코 귀찮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여자의 몸은 어머니로서의 역할 즉, 생명을 탄생시킬 준비를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몸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할 때이다.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말하자. 『내 몸은 아기 낳으실 귀한 몸』이라고. ♪

낙 수

● 쓸까 말까 망설였는데.....

정월대보름이라 지킴이와 당직자선생님이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다. 소원을 미리 생각해서는 둥근 달을 맞으려 나갔다. 느낌상 굉장히 예쁘게 생긴 달이었다. 소원은 뭐냐하면..... 다음에 적어야지. 사실은 이뤄지지 않았다. (3월 22일에 밝혔습니다. 이 날 빌었던 소원은 『오늘은 자지않고 근무하게 해주세요』 였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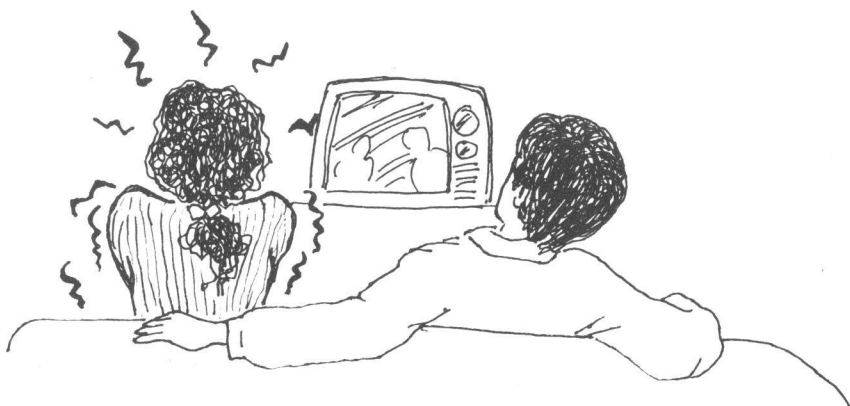
● 다양한 삶을 살면서 여러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언제나 즐겁고 자극을 준다. 상담소가 주는 또다른 보람이다.

● 야간상담원 선생님이 저에게만 해주신 말입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모두 기억합니다.

『성교육은 성지식 교육이 아니다. 인격교육이다.』 ♪

벽을 향하여

문 경 심 (방송작가)



여자는 거의 울 듯한 얼굴로 남자를 바라본다. 남자는 그러나 무표정하다. 여자는 남자에게 애원한다. 이제 남자는 조금 귀찮은 듯이 여자를 가볍게 밀어낸다. 여자는 더욱 필사적으로 남자에게 매달린다. 남자는 불쾌하고 경멸 서린 표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냉혹하게 여자를 뿌리친다.

은영은 문득 남편을 쳐다본다. 남편은 소파에 편안하게 누운 채 아주 무심한 얼굴로 텔레비전 화면에 눈길을 던지고 있다. 은영은 아주 짧은 순간 남편이 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남편은 분명 자신과 같은 공간에서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있다.

남자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었다고 믿는 여자와 새삼 그 여자가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남자의 통속적인 애기의 한 장면이 길고도 지루하게 그려지고 있는 그렇고 그런 멜로드라마, 그러나 은영에게 그건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다.

은영은 갑자기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모욕감으로 빠져린 통증을 느낀다. 마치 자신의 은밀한 치부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인 듯한 그런 더럽고 끔찍스런 기분이다. 아

니 어찌면 그 이상이다. 온 세상 사람들의 치부를 보는 듯한, 씹어가는 살덩이를 보는 듯한.

드라마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잔인하고 다소 폭력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여자를 때어내버린 남자의 입가에 얇은 미소가 떠오른다. 조금 짙은 시원한, 혹은 승리한 듯한 미소, 순간 남편의 얼굴에도 그와 유사한 표정이 스쳐가는 것이 불행히도 은영의 날카로운 시선에 포착된다.

그래 어찌면 저 사람도 그렇게 했을 테지,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은영은 구겨진 휴지조각처럼 초라하게 버려진 채 울고 있는 화면속의 여자를 바라본다. 그리고 얼마전에 자신을 찾아왔던 남편의 그 여자를 떠올린다. 그리고 화끈거리는 얼굴로 다시 남편을 쳐다본다. 바로 그때 남편도 은영을 바라본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얹힌다. 남편의 얼굴에 그녀를 야유하는 듯한 혹은 무시하는 듯한 표정이 떠오른다고 느낀 순간 이미 남편은 소파에서 일어나 등을 보이며 돌아선다.

은영은 한발짝씩 멀어지는 남편의 등을 노려보면서 새파랗게 날이 선 칼날을

떠올린다. 죽이고 싶다. 저 남자의 뻔뻔스런 등에다가 단죄의 칼을 꽂고싶다. 은영은 자신도 모르게 탁자에 놓여있는 과도를 집어든다. 그리고 서서히 일어선다. 동시에 남편이 고개를 돌린다.

『뭐해? 빨리 들어와서 자리잡지 않구?』

은영은 흠칫 놀라며 그 자리에 선다. 그리고 재빨리 잘 훈련된 개처럼 순한 얼굴을 하며 방으로 들어간다. 자신도 놀랄 지경으로 민첩하게 이불을 깔면서 은영은 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든다.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은영은 화장대 앞에 앉아 있다. 거울을 통해 지켜온 여자의 얼굴이 보인다. 이미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아직도 더 잃어버릴 것이 있는 양 두려워하고 있는 여자, 체념을 용서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높은 벽 속에 갇혀버린 여자, 세상 밖으로 뛰쳐나갈 용기가 없어 두엄더미 속에 주저앉은 여자, 그리고 바로 그 여자의 얼굴위로 화면속의 여자가 겹쳐진다. 그리고 또다른 여자.

은영은 감감한 절벽에서 끝도없이 추락하는 듯한 아득한 환상에 빠진다. 그리고 절망감. 은영은 잠전에 느꼈던 번득이는 살의가 다시 생생하게 살아난다. 온몸이 감전된 듯이 부르르 떨려온다. 은영은 잠든 남편의 얼굴을 찌를 듯 강렬한 시선으로 응시한다.

지극히 평화로운 얼굴로 끄읇 소리를 내며 돌아눕는 남편을 보면서 은영은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로 달려든다. 그리고 사정없이 목을 조른다.

『죽여버리겠어. 죽여버리겠단 말야.』

은영의 입에서 신음같은 절규가 배어나온다. 그때서야 번쩍 눈을 뜬 남편이 멀뚱한 얼굴로 은영을 올려다본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유

벤츠 · 오믈렛 그리고 사랑

- 영화 하몽하몽을 보고

최 지 영 (나눔에)

하몽하몽은 스페인어로 돼지뒷다리 햄을 칭하는 말이다. 속어로는 「먹고 싶은 여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영화속에서 남자주인공 라울이 여주인공 실비아를 마치 맛있는 음식인양 들이키듯 애무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다. 『실비아, 넌 하몽하몽이야』 즉, 이 말에는 성적 대상으로서 최고라는 찬사와 함께 성적인 만족감이 배고픔을 채운 뒤의 포만감과 유사하게 서로 교차하는 육체의 희열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듯 하다.

실비아는 남성용 팬티공장의 여공이다. 그녀는 기계의 소음 속에서 내내 남자의 팬티를 재단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사장의 아들과 연인 사이이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이모가 창녀 출신에다 술집을 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결합은 반대에 부딪힌다.

실비아는 이미 사장아들 호세의 아이를 가졌고 호세의 어머니 콘치타는 이들을 때내기 위한 계락을 쓴다. 콘치타는 팬티 광고 모델을 지원한 근육질의 남자 라울을 찾아가 실비아를 유혹하도록 한다. 이들의 계락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듯 하지만 오히려 라울에게 빠져든 콘치타가 실비아를 질투하고 실비아와 라울의 관계를 눈치챈 호세는 라울을 죽이겠다고 나선다. 라울을 죽이려간 호세는 라울과 어머니의 정사를 목격하고 라울과의 싸움에서 목숨을 잃는다.

어찌보면 진부하고 조잡한 내용을 담은 영화같기도 하다. 그러나 감독은 성을 소재로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가진 복합적 성격 - 식욕과 교차되는 성욕과 성적쾌락의 근저에 깔린 부에 대한 욕망 - 을 인물들의 얽힌 관계로서 비유하고 한바탕의 소동같은 이야기속에서 잘 표현하고 있다.

이 영화 속에는 성적요소와 음식이 같은 의미로서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어린아이같은 호세는 실비아가 구운 오믈렛을 실비아를 사랑하는 만큼 맛있게 먹는다. 실비아가 오믈렛이 더 좋은가, 자신을 더 사랑하는가를 묻자 호세는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둘다 좋다고 대답한다. 호세는 성적인 면에서도 실비아의

가슴을 마치 어린아이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처럼 애무한다. 영화속에서 그 장면은 에로틱하다기보다는 먹음직스러운 느낌이 나는 광경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호세의 욕망은 아직 어린아이같은 순진한 면이 묻어난다고 볼 수 있다. 아직 무엇 하나도 제대로 구별은 못하지만 양손에 모두 거머쥐는 아이처럼 말이다.

라울에게는 정력을 위해선 마늘이 좋다는 신념이 있다. 정사할 때도 그는 상대방에게 마늘을 권한다. 먹는 행위와 성적행위가 같은 의미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라울에게는 또다른 욕망의 단계가 숨어 있다. 라울은 실비아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녀를 하몽하몽이라 부른다. 즉, 라울에게 실비아는 식욕과 연관된 성적대상이며 사랑이다. 그러나 라울은 콘치타와의 관계에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욕정을 느낀다. 콘치타와의 정사에서 라울은 성적희열을 맛보는데 그 희열이란 다름아닌 콘치타가 줄 수 있는 물질적 풍요에 대한 기대감과 교차하여 부풀려지는 쾌락인 것이다. 라울의 이러한 이중적 욕망은 결국 파멸에 이른다. 그 파멸은 권선징악 차원에서, 욕심을 냈으니 그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식의 도덕적 결말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나 라울 자신이 그것을 객체화시켜 바라보게 된 사실이다. 영화의 결말은 등장인물 모두가 자신의 욕망의 구조를 깨닫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찌보면 우습기도 한 라울의 후회스러운 한마디 『벤츠 때문이야』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감독은 어찌보면 욕망의 장르가 그것이 성욕이든, 식욕이든, 아니면 물질적 욕망이든 간에 인간에게 깃들여 있는 욕망은 그것 자체 하나로 순수한 것은 없다고 말하고 싶은 것 같다. 우리는 이것과 저것이 혼합된 상태에서 우리의 감성을 혼돈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싶다. 욕망의 혼재가 비겹합이 아니라 현실이라면 그것 자체를 인정하고 우리의 욕망의 구조를 직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읽어 봅시다

삶을 위한 전주곡

■ **날마다 이혼당하는 여자**, 김수련지음, 장원

-서로 다른 성격의 여성과 남성이 만나 빈번한 충돌이 발생한다. 이 소설은 세 부부가 이러한 충돌속에서 펼쳐가는 결혼이야기를 통해 부부간의 「삶의 방법」이 그려진다.

■ **월터이야기**, 한국여성의전화 엮음, 그린비

-남편의 구타와 성폭행에서 탈출, 다시 합할 수는 없어 다른 또하나의 삶을 선택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간행물

1. 자료집

- ① 어린이 성폭행 세미나 자료집(1991. 174쪽. 3,000원)
상담통계로 본 어린이 성폭행의 실태와 대응방안, 예비책
- ② 데이트 강간 세미나 자료집(1991. 161쪽. 3,000원)
상담통계로 본 데이트 강간의 개념정의와 실태 및 대책
- ③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1991. 36쪽. 1,000원)
김보은·김진관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사건 개요와 친족성폭력 실태와 대책을 정리
- ④ 직장내 성폭행 세미나 자료집(1992. 147쪽. 3,000원)
상담통계로 본 직장내 성폭행의 실태 검토와 대응방안, 예비책
- ⑤ 제3기 상담원 예비 여성학 교육 자료집(1993. 137쪽. 3,000원)
성폭력 전문 상담원이 알아야 할 여성학적 시각
- ⑥ 개소 2주년 기념 자료집(1993. 181쪽. 3,000원)
상담소 개소 2주년을 맞아 2년(1991.1~1992.12) 동안 접수된 사례와 친족성폭력 사례를 분석
- ⑦ 친고죄 존폐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1993. 32쪽. 1,000원)
성폭력 특별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친고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를 밝힌 자료
- ⑧ 침묵에서 외침으로(1994. 108쪽. 2,000원)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의 진상을 통해 올바른 성희롱 개념정의와 법적 대응책 제시

2. 소책자

- ① 성폭력이란 무엇인가(1991. 17쪽. 500원)
성폭력의 개념 정의, 실태, 대처방안에 관한 교육자료
- ②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하여 - 어린이 성폭행 예방과 대책(1991. 23쪽. 1,000원)
성폭행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자료
- ③ 건강한 일터, 자유로운 여성 - 직장내 성폭행 예방과 대책(1992. 47쪽. 1,500원)
직장내 성폭행의 실상과 대응책에 대한 교육자료
- ④ 성폭력 없는 사회를 위하여 - 강제추행, 강간
올바른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자료

3. 단행본

- 일그러진 성문화, 새로보는 성(1992. 253쪽. 동아일보사. 4,000원)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폭력 문제에 관해 점검하고 피해여성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바로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쓰인 책

4. 소식지

- 계간 「나눔터」 제1호 ~ 10호
상담소 소식과 성폭력 실태를 알리고 올바른 성문화를 제시하고자 하는 소식지

5. 비디오

어린이 성폭력 예방 - 내몸은 내가 지켜요

비디오를 구입하려면.....

- 가격 : 18,000원 ●상영시간 30분
- 대상 : 유치원, 국민학교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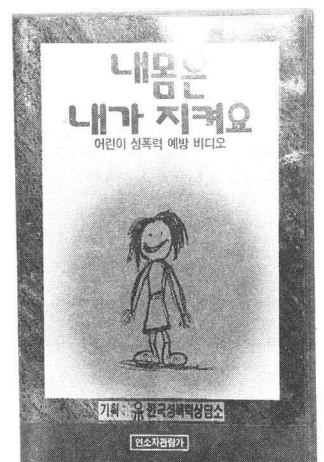
1.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여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2. 직접 구입이 어려운 경우는 우송료 2,000원을 포함하여 20,000원을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입금이 확인되는대로 등기 우송해 드립니다.

온라인 계좌번호 / 국민은행 : 009-01-1176-632

예금주 : 한국성폭력상담소

농협 : 137-01-194301

구입문의 : ☎ 576-7127 ~ 8





박종민
(의료자문위원, 위기센터 위촉)

본 상담소 의료자문위원으로 성폭력위기센터 개설 때부터 위촉으로 활동해 온 박종민 자문위원은 위기센터에 상담해오는 피해자의 외상치료 및 증거채취를 돕고 있다.

그는 이제 위기센터가 증거채취방법에 있어서 체계화된 단계에 와 있으며, 특히 DNA검사로 가해자가 누구인지까지 밝혀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1988년에 부인과 레이저 내시경 수술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해 온 장본인으로 요즘에는 불임치료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최근 그의 병원 내에서 정자희소증을 가진 남성들을 위한 「미세 수정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산부인과의사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불임으로 고통받는 많은 부부들을 치료하면서 아기를 잉태할 수 있음이 신의 큰 축복임을 새삼 깨닫는다. 그럼에도 한해에 우리나라 낙태인구가 1백5십만이 넘는 현실을 안타까워한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순수한 동기에서 출발하여 상담소를 돕고 있는 그는 우리나라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방이 우선되어야함을 강조하며, 상담소가 성폭력 예방교육에 역점을 둘 것을 당부한다.

현재 도곡동에 있는 「PL클리닉」의 원장인 박종민 자문위원은 1남1녀를 두고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있다. **유**



박찬운
(법률자문위원, 상담지원위원회 위원)

본 상담소의 법률자문위원인 박찬운 변호사는 올해 3월에 만들어진 상담지원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하다. 상담지원위원회는 상담내용에 따라 고소여부를 결정하고 적절한 법적 지원을 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84년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변호사로 5년째 활동하고 있는 그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인권문제이다. 93년 5월 그가 주도하여 시작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당직변호사제」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인권보장의 역사는 감옥의 역사라고 설명하는 그는 우리나라 감옥제도의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상담소가 그동안 성폭력의 심각성을 사회에 새롭게 인식시키고, 미흡하나마 성폭력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 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인정한다. 그러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되며 여성단체가 조직적인 운동을 펼쳐서 제도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올바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박찬운 자문위원은 서초동에 변호사사무실을 내고 있다. 국민학교 교사인 부인사이에 두 딸을 두고 있는 자칭 신세대 남편(?)이다. **유**

나눔터 알림판

●신규 회원

김정희, 정경애, 최혜선

●신규 후원회원

곽호국, 김은정, 김애미, 명노선, 박주경, 백월순, 염혜승, 배진순, 윤순녀, 이선영, 이재인, 전범용, 최건풍

●신규 나눔터 회원

경찰행정학회, 국민대 성곡도서관, 김윤미, 문정주, 박순미, 심인숙, 이순희

인하대 경상대 학생회, 전숙재, 주명순, 조자경, 황주원, 협성신학대학교 총여학생회, SBS 청소년상담실

●물품 기증해 주신분

유한킴벌리 - 휴지

●책 기증해 주신분

노경신, 박찬운, 실천문학사, 염혜승, 이호중, 장윤경

●기부금 내 주신분



이길너
(길병원 이사장)

만든이 : 김영아, 연민이, 류한경, 이계중, 이규화, 이시은, 장윤경, 최혜선

상담은 이렇게 합니다

■ 상담전화

일반상담: 02) 529-4271~2

위기센터: 02) 573-1888



유한국 성폭력 상담소

일반상담: 02) 529-4271~2

위기센터: 02) 573-1888

법률 · 의료 · 심리상담

강간을 비롯한 성추행, 성적희롱, 음란전화 등의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정신과의사·산부인과 의사·법조인·경찰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

-일반상담 : 월 ~ 금, 오전 10 - 오후 5시

토, 오전 10시 - 오후 1시

-위기상담 : 일요일 · 공휴일 제외 24시간

-면접상담 : 화, 목, 오후 2시 - 5시

-서신상담

여러분의 조그마한 정성을 기다립니다

- **상 담 원** : 본 상담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여성학 교육 / 상담원 교육)을 수료하면 상담원으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 **나 눔 이** :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여러가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보조, 자료정리, 번역, ...
- **위기센터지킴이** : 위기센터에 피해자가 전화를 하면 상담원, 병원, 경찰에 연결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물 품 기 증** : 사무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 **후 원 회 원** : 후원회원이 되면 소식지 「나눔터」와 자료들을 받아 볼 수 있으며 상담소 행사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비는 고통받는 피해여성들을 위해 쓰입니다.

■ 온라인 계좌번호

국민은행: 009-01-1176-632

농 협: 037-01-194301

조흥은행: 308-01-133092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소식지 「나눔터」와 함께 하세요!!

후원 회원으로 가입하시거나 1년 구독료 5천원을 위의 온라인 번호로 납입하신후 본 상담소에 주소를 알려 주시면 계간 [나눔터]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